김천 작목반을 찾아서

김천시에서 거창쪽으로 50리길을 가다보면 쭉 뻗은 가로수 사이로 들꽃이 만발하고, 저만치서 낙동강 지류인 감천천이 흐른다.

금릉군 지내면. 김천지역 작목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김천 생약공판장(공판장장 : 허영 감사)이 있는 곳이다.

김천지역에 작목반이 구성된 것은 지난 88년, 우리생약의 보급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회방침에 발맞춰 허영감사가 모임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50명으로 시작, 현재 2백50여 가구가 작목반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회장 1명, 부회장 5명, 총무 1명, 반장 22명의 임원이 작목반 운영을 맡고 있다.

연령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층으로 구성돼 있어 모임운영 역시 활기를 띈다.

정기모임은 봄, 여름, 겨울 1년에 3번이며,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총무가 임시모임을 개최하기도 한다. 봄 파종시기 때는 전국적 파종품목 현황을 파악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여름 7, 8월 가장 한가한 농한기때는 재배교육도 실시한다.

허 영 감사

◇지난달 21일 정기모임을 갖고 생약재배정보 교환과 모임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김천 작목반 회원들.

전망좋은 품종에 대한 약초수매가 어느정도 마무리 지어지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3번째 정기모임이 이루어지는데, 그날은 한 해의 약초농사를 마감하며 돼지도 잡고 푸짐한 삼차림으로 그간의 회포를 푸는 작목회의 잔치날이다.

또 소나기라도 쏟아지고 난 후면 인근 장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와서는 추어탕을 끓여 놓고 회원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등, 김천 작목반의 특색은 친형제처럼이나 끈끈한 유대관계로 뭉쳐있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작목반의 인적구성에 있어 허영 감사 나름대로의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적용된 때문일 수도 있다.

『작목반 회원을 구성할 때는 그 사람이 적절한 인물인가를 시험하는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결정하지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재배교육은 물론 무료로 종자도 보급해준다는 허영 감사의 말이다.

허 감사는 지금까지 일당귀, 백지, 천궁, 작약 등을 직접재배, 채취한 종자를 무료로 회원들에게 보급해 오고 있는데, 이도 돈으로 계산하면 1천여만원에 가까운 거금이라고 한다.

소문때문인지 거제군, 영일군, 삼척, 충남 금산, 부여 등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문의가 오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약초재배교육을 받아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김천 작목반 올 한해 수확 예상량은 천궁 1만평, 작약 4천평, 토천궁 2만평, 강활 4, 5만평, 당귀 15만평 정도.

토천궁의 경우 일천궁에 가리워져 멸종위기에 있는 품종으로, 이를 안타깝게 여긴 허 감사는 5~6년 전 부터 토천궁의 종자보관을 해왔다.

『토천궁은 향이 좋아 옛날 아녀자들이 머리 비녀속에 지니고 다니는 향수로 애용해 왔지요』

올 들어 토천궁을 3만평 정도 심었는데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해 1만5천평 정도에 심을 종자만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 작목반 회원들이 파종한 약초밭을 돌아보는 것으로 허 감사의 하루는 시작된다.

지난달 21일은 작목반의 정기모임일이었다. 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계약재배를 늘려 줬으면 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랴, 또 이달말까지 작약종자채취하랴 그의 하루는 24시간으로는 부족한 듯 싶다. 〈熙〉

시호관리 요령

삼도시호 재배는 발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과정에서 공을 들여 재배해 많은 수확량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적기에는 적심을 잘해 줌으로써 수확량이 30% 이상 늘어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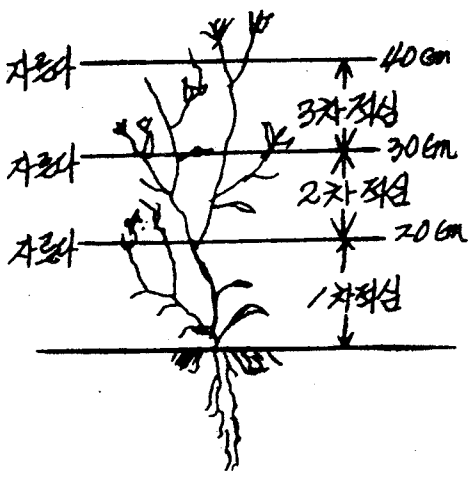
적심은 날씨가 좋은 날 실시하고 적심한 것은 밭 밖으로 버려야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

추비 기간은 10월 중순까지이며 한달간격으로 날씨가 좋은 날 실시하는 것이 좋다.

추비는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은 것이 좋으며, NK복비 17-0-16이나 18-0-18을 사용, 3백평당 30kg이 적당하다.

※적심 요령※

9월 중순경까지만 실시



재배고실

—하수오

옛날 중국 하수오라는 사람이 몸이 허약하고, 정력이 부족하여 남성의 구실을 못하고 고민하던 끝에 산중에 들어가 도를 닦던중 한밭중에 마치 남녀가 포옹을 하듯 서로 엉클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덩굴풀을 보고 괴상히 여겨 그 뿌리를 캐어 백일을 먹으니 오랜 병이 다 낫고 정력이 왕성해지고 백발이 다시 검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이 덩굴풀의 이름을 하수오라 부르게 되었으며, 일명은 夜合, 夜交, 山精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편집자 주〉

특 성

○보혈, 강장, 강정

신경통, 백모

○마디풀과에 속하며 줄기는 2~3cm 뿌리가 비대함

기후와 토질

○우리나라 어느 곳이나 재배가능

○배수가 잘되는 사양토 또는 점질토 포토 45cm이상(배수불량지는 재배하지 말것)

분포준비

○트랙터나 경운기이용 깊이 갈이 실시

○퇴비는 반당 3천kg 이상 시용

○복용 : (7-7-18-2-0.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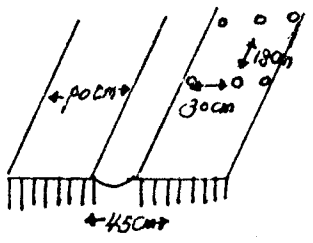
반당 7포 시용

○퇴비가 부족시는 유기질 비료 반당 3백kg 이상 필히 시용

○로타리후 이랑 만듬

○토양 살충제 반당 3~5kg 필히 살포

이랑만들기



종근심기

○미리 준비한 종근은 건조하지 않게함

○포기 사이 18cm, 휴간 거리 30cm

○복토는 될수 있는한 두껍게 한다.

지주 세우기

○대나무 지주는 반당 3천개 준비

○지주길이 1백80cm 정도

○식재후 이랑위에 10개 정도씩 다발로 설치

포장관리

○배수가 잘 되도록 항상 배수구 정비

○지주세우기 후에는 싹유인을 실시

○지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정비한다.

○열매따기는 가급적 일찍 실시한다.

○웃거름은 반당NK 비료 2포 정도를 시용함.

병충해 방제

○탄저병 : ·벤네이트, 다코닐, 톱신 ·다이센엠-45, 알타리 등

○진딧물 : ·올콜, 수퍼다사이드 ·데시스, 네타델타

○응애 : ·닛소란, 다코폴

〈중앙이사 김용한 제공〉

월별	3	4	5	6	7	8	9	10
농작업	정 식		지 주 세우기		열매 제거	1 차 웃거름	2 차 웃거름	수 확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진딧물 .탄저병		.진딧물 .탄저병 .응애	.응애 .탄저병		.진딧물 .탄저병	.진딧물 .탄저병	.진딧물 .탄저병

. 종근준비
- 평당60주
- 300평 : 18,000주

. 분포준비
- 퇴비, 비료내기
- 이랑만들기